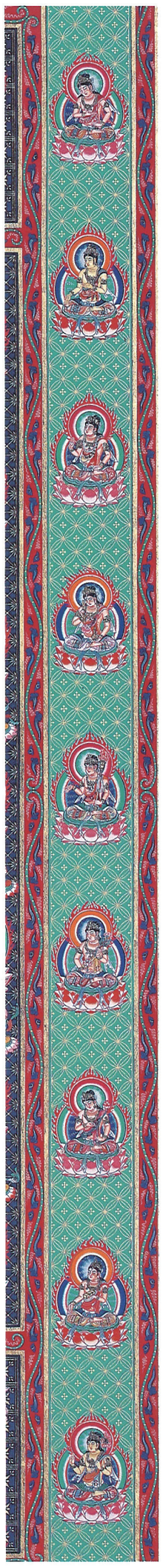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제개장원(除蓋障院)



제개장원은 금강수원의 남방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금강수원이 대지(大智)의 덕을 나타내는 데 이어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제개장원은 중생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제거하여 선심을 일으키는 서원을 나타내고 있다. 개장(蓋障)의 번뇌(煩惱)는 5종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탐욕개(貪欲蓋): 욕심의 경계를 총칭.
2. 진에개(瞋恚蓋): 분노의 경계를 총칭.
3. 혼면개(惛眠蓋): 혼침(昏沈)의 총칭.
4. 도회개(掉悔蓋): 산란(散亂)의 총칭.
5. 의개(疑蓋): 의심의 총칭.

대일경소에서는 번뇌장(煩惱障)을 추가하여 업장(業障), 생장(生障), 법장(法障), 소지장(所知障)을 오장(五障)이라 하는데, 위와 같은 5장을 제거함으로써 불보살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⑮ 뇌병변장애인 고명숙 씨

동료상담, 자립 능력 발견하는 과정



늘 한몸처럼 함께하는 고명숙씨(사진 오른쪽)와 장애인활동보조사 김귀순씨.

뇌성마비인 고명숙 씨는 동료 상담가이자 동물보호 운동가다. 그녀가 SNS에 올리는 글 속에는 반려동물인 고양이 '우리' 와 토끼 '사랑이' 와의 따뜻한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를 함께 갖고 있어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김귀순 활동보조사 선생님의 지극한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녀는 전문적인 동물보호 운동가는 아니지만, 내면에 깔린 불교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녀의 미소가 한없이 아름다운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리라.

고명숙씨의 생명 사랑은 자신, 그리고 동료 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녀는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4단계로 중단 중이지만, 2020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편의시설 조사와 동료 상담을 겸하고 있다.

동료 상담은 주로 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한 대목이다. 장애인의 자립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곧 자립인 셈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념은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 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인 나카니시가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을 소개하면서 처음 전해졌다. 이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의지를 갖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00여 개소가 있다.

고명숙 씨 역시 자립생활 정보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끈 당사자다. 그녀는 2001년부터 정립회관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정보를 접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그것이 이뤄지기 위한 요건, 과정이 참 본능적이고 참으로 타당하게 다가왔고 희망을 줬다.

그녀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결성됐다"며 "그 크나큰 노고와 성과에 큰 힘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할 일이 주어지면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동료 상담이 장애인 자립과 밀접한 이유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장애 동료를 카운슬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차별과 억압,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 장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치유인 동시에 성장을 이끄는 바로미터다. 나아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동료 장애인과 함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지지받음으로써 당사자 스스로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장애인 자립의 첫 발이라는 설명이다.

정립회관을 통한 자립생활 정보 중에서도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 는 장애인의 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부터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안겼다. 동시에 그녀가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보호 운동가로, 또 동료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고명숙 씨는 "활동보조사와 인연을 맺고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고 받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보다 주체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다 넓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소개받은 분야가 바로 동료상담이었다. 그녀 스스로 자립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배우고 이해한 터라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다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 또한 크다.

고명숙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사찰 내에도 장애인들의 신행과 수행을 도울 수 있는 템플스테이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농담 삼아 건넸더니 그녀와 활동보조사 선생님도 금방 공감을 해 한바탕 웃음이 번졌다. 모두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불자들이니 더욱 공감대가 컸을 지도 모른다.

그때 고명숙 씨가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하던 중에 경험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어느 상점에 조사하러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출입구, 매장의 매대 사이 넓이 등 휠체어 접근권은 만족스럽게 되었는데 다만 진열장의 높이가 높아 휠체어를 탄 자신에게 불편했다. 그러나 점원이 친절한 응대와 안내를 해주면서 물건을 고를 수 있게끔 해주니 진열장의 불편함은 원만히 해결되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조금의 불편함 정도는 사람과 사람의 기분 좋은 소통으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며 "이는 사찰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중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주로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공을 했거나 이슈가 되는 특별한 사람, 혹은 보다 좋은 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활동가로 거리로 나오는 경우다. 하지만 더많은 장애인들이 고명숙 씨처럼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 성실히 살며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녀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듯이, 우리 불교에서도 이들을 사랑하고 편견없는 시선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주길 바래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귀병에 퉁퉁 부어오른
5개월 아기의 사투

쓰나미로 터전 잃은 기달씨 부부 첫 아이 유산 후 얻은 쌍둥이
2개월 만에 발병…간병 위해 휴직, 병원비만 매달 3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